

선도 IS 저널에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실적 측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Evaluating Publication Productivity of Korean IS Researchers in Leading IS Journals, 2007~2009

임 세 현 (Sehun Lim) 상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민 경 휘 (Kounghuy Min)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대학 및 기업에 소속을 두고 있는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에 기반해 *MIS Quarterly(MISQ)*, *Information Systems Research(ISR)*,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JMI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JAI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EJIS)*, *Information Systems Journal(ISJ)*, *Decision Support Systems(DS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CAIS)*, *Information and Management(I&M)*, *Journal of Strategy Information Systems(JSI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JIT)* 11개 선도 저널을 선정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논문을 사이언토메트릭 기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 IS 연구자의 우수한 연구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연구자의 파악 및 채용 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것이고, 더불어 신입생 유치에 있어 학교와 학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실적 측정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연구의 독창성이 존재하며, 한국 IS 연구자의 논문 출판 추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 정보시스템, 학술 연구, 연구실적, 홍보, 사이언토메트릭 분석

I. 서 론

IS(Information Systems)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 본 연구는 2011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본 연구자들은 초고에 유익한 고견을 제공해주신 편집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11개 저널의 논문 출판 자료를 수집해준 2010년 2월 상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측정에 대한 연구는 여러 IS 연구자들에게 꾸준한 관심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Athey and Plotnicki, 2000; Barnes, 2005; Clark, Warren and Au, 2009; Ayanso, Lertwachara, and Vachon, 2007). AIS(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에서 출판하는 CAIS(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s)에는 IS 연구실적 측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CAIS 뿐만 아니라, 다양한 IS 저널에서 연구실

적 측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출판되었다 (Rainer, Miller, 2005; Peffers, Tang, 2003; Dennis, Valacich, Fuller, Schneider, 2006). 최근 MIS 분야에서 ISR, MISQ, JMIS 등 선도저널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출판하고 있는 벤카테쉬(Venkatesh) 교수는 그의 홈페이지(<http://www.vvenkatesh.com/ISranking>)에서 IS 분야의 연구실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S 연구자의 연구실적은 연구자의 명성과 연구자 소속 대학의 명성을 보여 주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단과대학, 학과의 홍보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 국가의 경우 연구실적과 연봉과의 연계,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자 연구논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Treischmann, Dennis, Northcraft, and Neimi, 2000; Kozar *et al.*, 2006; Dennis *et al.*, 2006; Templeton, Lewis, and Lou, 2007; Dennis, Valacich, Fuller, and Schneider,

2006; Ferratt, Gorman, Kanet, and Salisbury, 2007). 미국의 경우,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경영대학원 소속 교수들의 MISQ, ISR, JMIS 등에 출판된 연구실적을 입학생을 충원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Treischmann, Dennis, Northcraft, Neimi, 2000). 영국의 경우도 유명저널에 나타는 연구실적을 학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Willcocks, Whitley, and Avgerou,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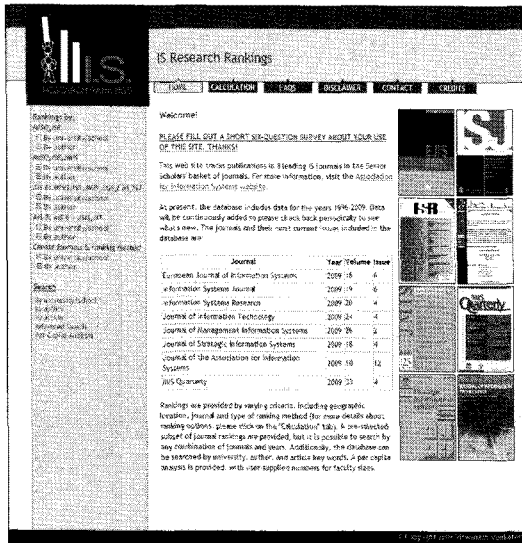
현재 미국의 경우, 각각의 대학마다 승진을 위한 대학 내부의 저널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 매년 교수들의 업적 평가를 수행한다. 저널 평가 연구는 다양한 기관 및 연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AIS의 선도연구자 포럼에서는 IS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저명저널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MIS Quarterly(MISQ)*, *Information Systems Research(ISR)*,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

〈표 1〉 CAIS에 출판된 연구실적 측정 연구

- Athey and Plotnicki(2000)-An Evaluation of Research Productivity in Academic IT
- Ayanso, Lertwachara, and Vachon(2007)-Diversity or Identity Crisis? An Examination of Leading IS Journals
- Clark and Warren(2006)-In Search of the Primary Suppliers of IS Research: Who Are They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 Clark, Warren, and Au(2007)-Carnegie Classifications and Institution Productivity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A Scientometric Study
- Clarke(2008)-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er Impact
- Ferratt, Gorman, Kanet, and Salisbury-IS Journal Quality Assessment Using the Author Affiliation Index
- Huang and Hsu(2005)-An Evaluation of Publication Productivity in Information Systems: 1999 to 2003
- IKaruga, Lowry, and Richardson(2006)-Assessing the Impact of Premie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over Time
- Kozar, Larsen, and Straub(2006)-Leveling the Playing Field: A Comparative Analysis of Business School Journal Productivity
- Lowry, Karuga, and Richardson(2007)-Assessing Leading Institutions, Faculty, and Articles in Premie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s
- Neufeld, Fang, and Huff(2006)-The IS Identity Crisis
- Templeton, Lewis, and Lou(2007)-Author Affiliation Index: Response to Ferratt *et al.*
- Clark, Warren, and Au(2009)-Assessing Researcher Publication Productivity in the Leading Information Systems Journals: A 2003~2007 Update

mation Systems(JAI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JMI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EJIS), Information Systems Journal(ISJ)가 포함되었다. AIS에서는 이를 “AIS Six”라 명명하였다.



〈그림 1〉 Venkatesh 교수의 홈페이지

Clark et al.(2009)의 IS 연구실적 측정 연구에서는 AIS에서 제시한 기준이 일부 반영되었다. 그들은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AIS의 기준에 기반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3개의 저널을 추가해 9개의 평가 대상 저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저널을 대상으로 IS 연구자와 연구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연구실적 측정에 있어, IS 연구자들은 연구성과를 컴퓨터 사이언스 저널, OR 저널, 정보시스템 저널 등 다양한 저널에 출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저널을 대상으로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Clark et al.(2009), Clark and Warren(2006)은 IS 분야의 연구실적 측정에 있어 순수한 정보시스템(pure IS) 저널을 대상으로 연구실적을 측정하였다.

물론, 한국의 경우, 국가 규모나 대학 규모에 있어 미국의 국가 규모와 대학 규모에 비교할 만

한 수준은 못되지만, MISQ, ISR, JMIS 등과 같은 저명 저널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유능한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명 저널에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측정하는 연구는 승진, 연봉, 정년보장, 학교 및 학교 홍보 등에 있어 미래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ark et al.(2009)이 제안한 IS 저널 연구실적을 분석한 절차에 입각해, 사이언토메트릭(scientometric) 기법을 이용해 11개 저널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속기관이 한국에 있는 IS 연구자의 연구실적 측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널 선정에 있어 Clark et al.(2009)이 제시한 9개 저널을 기준으로, 다양한 연구실적 측정 연구를 종합해 연구실적 측정 대상 저널을 11개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IS 연구자의 역량 평가 및 연구실적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원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두 번째 단원은 연구실적 측정을 위한 방법론과 저널 선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원은 연구실적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네 번째 단원은 수집된 11개 저널의 연구논문 자료를 분석하고, 토의하였다. 마지막 다섯째 단원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의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저널 선정

연구실적 측정 연구에서 저널 선정은 중요한 이슈이다(Rainer and Miller, 2005; Peffers and Tang, 2003). 선행연구에 나타난 저널 선정 기준은 논문의 인용지수, 선행연구에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저널 선정 방법이 제시되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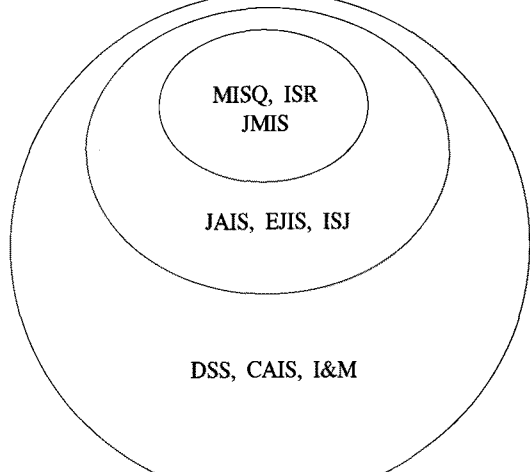
연구실적 측정 선행연구에서 Peffers and Tang (2003)은 정보시스템 전문가 1129명의 조사결과에 기반해 연구실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Karuga et al.(2006), Katerattanakul et al.(2003)는 연구의 인용지수에 기반한 연구실적 측정을 하였다. Clark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Rainer and Miller, 2005; Peffers and Tang, 2003)에 기반한 저널 도출과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9개 저널을 선정해 연구실적을 측정하였다. Lowry, Romans, and Curtis(2004)는 상위 저널로부터 응답 표본을 추출하고, 이에 기반해 414개의 정보시스템 학과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저널 생산성 측정 항목을 측정하였다. Mylonopoulos and Theoharakis(2001)는 연구자 커뮤니티인 ISWorld에서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Venkatesh 교수는 그의 홈페이지(<http://www.vvenkatesh.com/ISranking>)에서 선행연구를 분석해 <표 2>와 같이 8개 저널을 선정하였고, 이 저널에 대한 학과별, 연구자별, 지역별 연구실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웹 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표 2> Venkatesh가 분석한 저널

Journal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 Rainer and Miller(2005): MISQ, ISR, JMIS, DSS, I&M, EJIS, CAIS, JSIS, JDBA



<그림 2> Clark et al.(2009)이 제시한 저널 9개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Senior Scholars' Basket of Journals

AIS encourages members, as well as deans and department chairs, to create a "basket" of 5 journals as top journals in our field. Such a list is needed to provide more consistency and meaningfulness to tenure and promotion cases. This list was adopted from a formal statement by the "Senior Scholars Forum" as of 22 April 2007. The Senior Scholars Forum consists of senior information systems academics who have served as editor-in-chief of MIS Quarterly and ISIS, plus former ISIS program chairs and presidents of AIS.

The journal list is limited to those in the "IS field," and omits multidisciplinary outlets on one hand and specialty areas on the other. Nevertheless, the list recognizes textual, methodological, and geographic diversity. In addition, the review processes are stringent; editorial board members are widely-respected and recognized, and there is international, peer-review and collabor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 short journal list (such as this) is most appropriate for high-ranking,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and most likely not at all appropriate in cases where there are few research resources and high teaching loads. In those cases, this short journal list should be augmented liberally by careful deliberation of departments and/or department chairs. For instance, at the leading research end of the spectrum, many schools (especially research-intensive) count all refereed outlets. Publishing in this small set of journals is exceedingly difficult already, and nearly impossible without abundant resources for careful research.

AIS emphasizes that this list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replacement for assessments based on objective measures such as citation indices or author affiliation indices. It should also not be seen as a substitute for assessments based on high-impact opinion surveys or currently submitted on subfields. It is meant to provide an alternative,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members of the Senior Scholars group. All departments and/or department chairs should consider those other resources before making their final decisions.

Agreeing the list can also be important in some research schools. For example, in schools with a highly technical focus, the above journal list should obviously include highly-rated and/or high-impact technical journals. Other programs draw from and contribute to a multidisciplinary base, and should include journals from other fields such as Computer Science, Economics, Philosophy, Mathematics, and Human-Computer Interaction. The Senior Scholars focused on behavioral, business-oriented IS research, which might reflect a majority, but is not a universal model that fits (or even should fit) all schools. It strengthens our discipline to integrate our knowledge with other fields, and provides more choices for students, so interdisciplinary work should be encouraged.

The 5 journals in the list are, in alphabetical order:

-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 Information Systems Journal
-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 Journal of AIS
- Journal of MIS
- MIS Quarterly

The original letter from the Senior Scholars can be found [here](#). As you will see, their opinion is that two additional journals can be included without a loss in quality:

-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assessment might be maintained but some deans and departments do not utilize a list of eight journals.

Please let us know if this list provides helpful guidance to you in tenure and promotion cases, especially for those in schools currently with only the journals listed in this "5" category. Given the transient nature of reviews in many of our journals, and the frequency of our publications, we believe that the bases of six or eight journals will take a step towards evening the score with other business disciplines.

<그림 3> AIS 홈페이지에서 제안한 선도저널

- Peffers and Tang(2003): MISQ, ISR, JMIS, DSS, I&M, EJIS, CAIS, ISJ, DB,
- Lowry, Romans, and Curtis(2004): MISQ, ISR,

JMIS, DSS, I&M, JCIS, DB, ISJ

- Mylonopoulos and Theoharakis(2001): MISQ, ISR, JMIS, DSS, I&M, EJIS, CAIS, JSIS, DB
- Clark *et al.*(2009): MISQ, ISR, JMIS, JAIS, EJIS, ISJ, DSS, CAIS, I&M
- AIS(2010): MISQ, ISR, JMIS, EJIS, JAIS, ISJ, JSIS, JIT
- Venkatesh(2010): MISQ, ISR, JMIS, EJIS, JAIS, JSIS, ISJ, JIT

본 연구에서는 Clark *et al.*(2009)이 제안한 9개의 저널을 기본(① Core Three-MISQ, ISR, JMIS, ② AIS Six-JAIS, EJIS, ISJ, ③ Select Nine-DSS, CAIS, I&M)으로 연구실적 측정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해 2개의 저널(JSIS, JIT)을 추가하였다. JSIS, JIT를 저명저널로 인식해 평가에 포함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AIS(2010), Venkatesh(2010) 등이 있었고, 추가로 JSIS를 저명 저널로 평가한 연구자는 Rainer and Miller(2005), Mylonopoulos and Theoharakis(2001)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의 저널 분류 체계는 Clark *et al.*(2009)의 분류 체계를 따랐고, 여기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 저널로 선정된 JSIS, JIT을 4티어 레벨 저널로 선정하여 확장우수저널로 명명하였고, 이 2개의 저널을 추가해 분석하였다.

■ 핵심저널 3(CORE THREE)

- MIS Quarterly(MISQ)
- Information Systems Research(ISR)
-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JMIS)

■ AIS 저널 6(AIS S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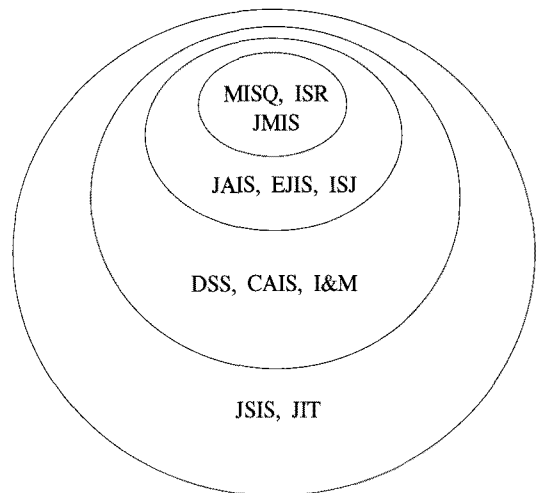
-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JAIS)
-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EJIS)
- Information Systems Journal(ISJ)

■ 우수저널 9(SELECT NINE)

- Decision Support Systems(DSS)
-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CAIS)
- Information and Management(I&M)

■ 확장우수저널 11(EXTEND SELECT TWELVE)

- Journal of Strategy Information Systems(JSIS)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JIT)



〈그림 4〉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저널

III. 연구방법론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선택된 11개 저널에 대하여 한국 IS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성 측정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판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논문 출판 정보 수집에 있어 연구자의 국적과 소속은 출판된 논문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대학에 소속된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논문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

국 대학의 교원이거나 또는 외국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논문이 출판될 당시는 외국 대학 소속이었으나, 이후 한국 대학으로 소속을 옮긴 IS 연구자의 연구논문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 대학과 외국 대학에 동시에 소속을 가지고 있는 IS 연구자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저널의 스페셜 이슈(Special Issues) 및 일반 이슈(General Issue)의 에디토리얼(Editorial) 및 콜리젠덤(Corrigendum), 에디터의 코멘트(Editor's Comments)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자료는 대학교 학부 4학년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1개 IS 저널의 자료 3년 간 출판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엑셀에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 성명, 연구 논문 제목, 저널 명, 출판 년도, 출판물의 권수 및 호수, 페이지 등이다. 특히 연구실적 자료 수집에 있어, IS 연구자의 경우 대학교, 민간기업, 연구기관, 국영기업체 등 소속이 다양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논문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상세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¹⁾

1) 본 연구에서는 IS 연구자의 연구실적 측정에 있어 연구자와 학교별 구체적인 순위를 제시하지 않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1순위 연구자 및 대학을 소개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의 한계에서 언급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실적 측정 연구는 논문의 품질과 출판의 어려움에 따른 계량화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량화가 갖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MISQ에 논문을 1편 게재한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JIT에 논문을 3편 게재한 연구자의 연구역량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역량 측정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연구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와 논문 출판의 어려움(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3.2 분석방법론

저널 평가에 있어 사이언토크메트릭 기법은 연구자들과 관련된 출판물에 대한 과학적 절차에 입각해 양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저널에 출판된 개인의 연구실적 측정 뿐만 아니라 연구저널의 영향력 측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연구저널이 등재된 데이터베이스의 인용지수 측정에 대한 연구로 Karuga *et al.*(2006), Katerattanakul *et al.*(2003), Neufeld *et al.*(2006), Lowry *et al.*(2007) 등의 연구가 있다. IS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측정을 위한 사이언토크메트릭 기법의 적용은 Chua *et al.*(2002), Karuga *et al.*(2006), Clark *et al.*(2007), Lowry *et al.*(2007), Davis(2001), Clark *et al.*(2009), Peffers and Tang(2003) 등 다양한 연구에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lark *et al.*(2009)이 제시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분석을 하였다.

IV. 분석

4.1 연구자별 생산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IS 분야 11개 선도 저널에 대한 연구자별 연구실적을 측정하였다.²⁾ 연구실적 측정 방법은 Clark *et al.*(2009)이 제시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단독 출판의 경우 1점, 2인 출판의 경우 0.5점, 3인 출판의 경우 0.33점, 4인 출판의 경우 0.25점으로 평가를

도 차이가 존재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실적을 측정하는 것이다. 출판된 연구논문의 저자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는 한국인, 외국인 또는 한국인과 한국인의 연구자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년도 별로 출판된 논문의 빈도분석은 연구자 개별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논문 빈도분석 테이블은 포함하지 않았고, <표 3>과 <표 4>를 통해 년도 별로 연구논문을 출판한 한국연구자의 이름과 소속을 제시하였다.

하였다.³⁾

핵심저널 3 측면에서는 손재열(연세대)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여주는 연구자로 나타났다. AIS6 측면에서는 이호근(연세대)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여주는 연구자로 나타났다. 확장저널 9에서는 이재남(고려대)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우수저널 11에서는 안재현, 한인구, 김병수, 김명수(카이스트)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개 IS 연구저널의 연구 논문 출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의 IS 연구실적은 이재남(고려대) 연구자가 높은 연구실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 3) 가중치 산정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Venkatesh(<http://www.vvenkatesh.com/ISranking>)는 그의 홈페이지에서 가중치(Weighted count) 산정에 있어 단독저자는 1점, 2인 공동 저자는 0.7점, 세 명의 저자는 0.5점, 4명 또는 그 이상의 저자는 0.3점을 부여한 평가를 하였다. 그는 Chua(2002)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따랐다. 상세한 내용은 「Chua, C., L. Cao, K. Cousins, and D. Straub, "Measuring Researcher-Production in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3, 2002, pp. 145-215.」에 나타나있다.
- 4) 일부 연구자(Son, J., Moon, J., Oh, W. 등)의 경우 소속기관이 외국대학에서 한국대학으로 변경되었는데, 본 분석에서는 논문에 표시된 소속기관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면, 「Son, J. and I. Benbasat, "Organizational Buyers' Adoption and Use of B2B Electronic Marketplaces: Efficiency- and Legitimacy-oriented Perspective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4, No.1, 2007, pp. 55-99.」의 연구는 2007년 출판 당시 연구자 소속이 한국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Hahn, J., J. Moon, and C. Zhang, "Emergence of new project teams from open source software developer networks: Impact of prior collaboration tie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9, 2008, pp. 369-391.」와 「Moon, J., Lee, Sproull, "The role of feedback in managing the internet-based volunteer work forc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9, No.4, 2008, pp. 494-515.」

4.2 연구기관별 연구실적 측정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기관별 연구실적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연구자의 소속에 입각해 분석을 하였다. 일부 IS 연구자의 경우 소속기관이 2곳(한국대학교, 외국대학교)으로 출판 논문에 인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의 대학교 IS 연구자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평가에 있어 Clark *et al.*(2009)이 제시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구자 단독 출판의 경우 1점, 2인 출판의 경우 0.5점, 3인 출판의 경우 0.33점, 4인 출판의 경우 0.25점, 5인 출판의 경우 0.2점으로 평가를 하였다. 핵심저널 3, AIS 저널 6, 우수저널 9, 확장우수저널 11의 성과측정 결과는 <표 4>와 같다.⁵⁾

V. 결 론

5.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1개 저널에 출판된 IS 연구자의 선도저널 연구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lark *et al.*(2009)이 제안한 연구실적 측정 분석기법인 사이언도메트릭 기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1개 IS 저널에 나

의 연구는 2008년 논문 출판 당시 연구자 소속이 한국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Henry C. Lucas Jr., W. Oh, and B. W. Weber, The defensive use of IT in a newly vulnerable marke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1980~2007, *Th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Vol.18, No.1, 2009, pp. 3-15.」의 연구는 2009년 논문 출판 당시 연구자 역시 소속 대학이 한국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5)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 IS 연구자가 11개의 선도저널에 출판한 연구실적을 평가하였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연구실적에 대한 연구기관별 순위평가는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일반화에 따른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관별 성과에 대한 상세한 평가 순위를 제공하지 않았다.

<표 3> 저자별 연구실적 측정6)

구 분	저널명	이름(점수)					
		2007		2008		2009	
핵심저널 3	MISQ	이상용	0.33	손재열	0.5	손재열	0.5
						김희용	0.5
						남기찬	0.25
	ISR	박정수	0.33				
	JMIS	이상용	0.25	유병준	0.33		
AIS 저널 6	JAIS	최 현	0.25			이상훈	0.33
		이민경	0.25			이호근	0.33
		임건신	0.25				
		김진우	0.25				
	EJIS			양희동	0.33		
				강혜련	0.33		
	ISJ					김기문	0.33
					이호근	0.33	
					남기찬	0.25	
우수저널 9	I&M	박기우	0.5	이재남	1.16	윤철호	1
		토니안(안동희)	0.33	김상현	1	이 정	0.5
		류시원	0.33	조정민	1	이재남	0.5
		한인구	0.33	이상재	0.5	이규동	0.5
		하임숙	0.33	안현철	0.5	이원준	0.5
		윤영석	0.33	곽기영	0.5		
		최문기	0.33	임 일	0.33		
		박종훈	0.33	한현수	0.33		
		서현주	0.33	이준기	0.33		
		양희동	0.33	신호경	0.33		
			손소영	0.33			
			장인상	0.33			
	DSS	최대영	1	이건창	0.5	이병태	0.5
		이상용	0.5	권순재	0.5	심선영	0.5
		김은진	0.5	김충녕	0.33	김희용	0.5
		이병태	0.5	임재걸	0.25	심광모	0.33
		정연돈	0.33	박찬식	0.25	김학진	0.33
김명호		0.33	주재훈	0.25	김우주	0.33	
이기영		0.33	정성환	0.25	이명진	0.33	
손진현		0.33			권성우	0.2	
김명호	0.33			유병준	0.2		

우수저널 9	DSS	이홍걸	0.33			김진배	0.2
		하정훈	0.33				
		문상재	0.33				
		유병준	0.33				
		홍사능	0.33				
		최인준	0.33				
		김진기	0.25				
		남기찬	0.2				
		송용길	0.2				
	CAIS	이재남	0.75	이재남	1	이장혁	0.33
		유성원	0.5			이종호	0.33
		김용진	0.33			이동원	0.33
		곽기영	0.25			이희진	0.33
확장 우수저널 11	JSIS	N/P	N/P	N/P	N/P	N/P	N/P
	JIT	김명수	0.5			김병수	0.5
		안재현	0.5			한인구	0.5
		김창기	0.33				
		장정주	0.33				
		이진주	0.33				

※ N/P : 출판된 논문 없음

탄만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 분야에서의 연구실적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IS 연구자보다는 미국의 IS 연구자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교의 규모나 수에 있어 미국의 대학에 비교할 때 상당한 열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실적은 향상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몇몇 연구자들이 IS 분야의 선도저널에 여러 편의 연구논문을 출판하고 있다. 이는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역량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높아진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국내 대학은 글로벌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IS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의 양적 평가와 더불어 질적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IS 분야 연구자의 선도저널에 출판된 연구실적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IS 분야의 연구자 평가 및 대학 평가에 유용한 기준을 제안해 줄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한국의 대학에서도 미국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승진, 연봉, 직급 등 다양한 기준에 입각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대학 중 일부는 연구의 질적 평가를 통해 조기 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있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IS 연구자에게 성과금 및 포상을 제공하는 대학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임용 또는 승진 시 우수 연구자에 대하여 조기 정년 보장을 해주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IS 분야에서의 연구

6) 본 연구에서 외국 대학의 한국인 교수와 외국 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의 연구성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 연구기관별 연구실적 측정

구 분	저널명	연구기관(점수)					
		2007		2008		2009	
핵심저널 3	MISQ	한양대학교	0.33	연세대학교	0.5	연세대학교	1
						서강대학교	0.25
	ISR	서강대학교	0.33				
	JMIS	한양대학교	0.25	서울대학교	0.33		
AIS 저널 6	JAIS	연세대학교	0.75			한국조달연구원	0.33
		카톨릭대학교	0.25			연세대학교	0.33
	EJIS	이화여자대학교	0.66				
	ISJ					건양대학교	0.33
						연세대학교	0.33
					서강대학교	0.25	
우수저널 9	I&M	한국정보통신대학	0.99	경북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2
		KAIST	0.66	연세대학교	1.32	목포대학교	1
		이화여자대학교	0.66	고려대학교	1.16	고려대학교	1
		성균관대학교	0.5	세종대학교	0.5		
		서울대학교	0.33	성신여자대학교	0.5		
		인제대학교	0.33	국민대학교	0.5		
				한양대학교	0.33		
			한국생산성본부	0.33			
	DSS	KAIST	1.89	성균관대학교	1	연세대학교	1.99
		한양대학교	1.16	동국대학교	0.75	KAIST	0.5
		유한대학	1	인하공대	0.5	서울여자대학교	0.5
		경북대학교	0.66	서울시립대학교	0.33	고려대학교	0.4
		서울대학교	0.66	충북대학교	0.25	광주과학기술원	0.33
		고려대학교	0.33			서울대학교	0.2
		경남대학교	0.33				
		포항공대	0.33				
		한국항공대학교	0.25				
		서강대학교	0.2				
	KIST	0.2					
	CAIS	고려대학교	1.25	고려대학교	1	고려대학교	1
서강대학교		0.33			연세대학교	0.33	
국민대학교		0.25					
확장 우수저널 11	ISIS	N/P	N/P	N/P	N/P	N/P	
	JIT	KAIST	0.83			KAIST	1
		SK연구소	0.5				
		CJ홈쇼핑	0.33				
		서울대학교	0.33				

* N/P: 출판된 논문 없음.

자 평가 자료 및 기준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최근 국내외 대학교에 재직중인 IS 연구자의 이동이 많은 실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IS 연구자의 대학 이동 동향을 반영하지 않고, 출판된 저널에 명기된 소속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IS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IS 연구자의 소속 변경에 따른 개별 대학의 연구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저자 관련 특성, 예를 들면, 국외의 한국인 IS 연구자를 포함하거나, 또는 IS 연구자의 소속기관 이동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IS 연구자를 박사과정 학생과 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통합해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11개의 선도 IS 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실적 측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에 출판된 연구논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저널 선정에 있어 선행 연구에 입각해 11개의 IS 선도저널을 선정하였지만, 이 선정 기준은 연구자의 연구 분야(행동지향 연구, 기술지향 연구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구저널의 우수성을 평가하는데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 입각해 선택한 11개의 우수저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는 동의를 하겠지만, 일부의 연구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⁷⁾ 그렇기 때문에 연구결과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

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래 후속 연구에서는 행동지향 연구와 기술지향 연구에 따른 저널 우수순위 선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저널 선정 기준과 평가기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MISQ에서부터 JIT에 이르기까지 11개 저널은 순수 IS 분야의 우수저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실적 측정에 있어 출판논문의 참여 저자 수를 토대로 계량화를 하였다. 실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논문의 저널 마다 심사에 따른 출판 어려움 강도가 상이하고, 더불어 다양한 연구자마다 저널의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해석과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IS 저널의 질적 평가를 포함한 연구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IS 연구자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IS 저널에 출판된 IS 연구자의 연구논문의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실제, 11개의 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IS 연구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경영정보학 전공뿐만 아니라 마케팅, 경제학, 경영과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학문적 특성상 경영정보학 분야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관계

7) IS 분야의 연구실적 측정은 평가 주체(기관 또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기준에 입각해 저널을 선정하고, 연구실적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경영대학에서 수행하는 세계 경영대학 연구성과 평가에서는 경영 분야의 24개 저널을 대상을 선정해, 여기에 출판된 논문에 대해 저널별 가중치를 변형해 세계 경영대학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이 대학의 평가에서 IS 분야의 우수저널로는 MIS Quarterl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f Computing을 포함하고 있고,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는 제외하고 있고, IS 분야의 연구자들이 종종 논문을 출판하는 Management Science, Organization Science 저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의 연구생산성 평가에는 경영학 세부 전공별 평가를 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용한 IS 연구자라는 용어를 보다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11개의 IS 저널에 연구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로 보는데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선도 IS 저널에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실적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지만, 장기간의 연구논문 성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데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긴 기간의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IS 저널에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실적 분석은 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IS 분야의 선도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한국 IS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연구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 Athey, S. and J. Plotnicki, "An Evaluation of Research Productivity in Academic IT",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3, No.7, 2000, pp. 1-20.
- Ayanso, A., K. Lertwachara, and F. Vachon, "Diversity or Identity Crisis? An Examination of Leading IS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20, No. 42, 2007, pp. 660-680.
- Barnes, S., "Assessing the Value of IS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8, No.1, 2005, pp. 110-112.
- Chua, C., L. Cao, C. Cousins, and D. W. Straub, "Measuring Researcher Production in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3, 2002, pp. 145-215.
- Clark, J. G. and J. Warren, "In Search of the Primary Suppliers of IS Research: Who Are They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8, 2006, pp. 296-328.
- Clark, J. G., J. Warren, and Y. A. Au, "Carnegie Classifications and Institution Productivity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A Scientometric Study",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9, 2007, pp. 478-512.
- Clarke, R.,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er Impact",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22, 2008, pp. 2-32.
- Clark, J. G., J. Warren, and Y. A. Au, "Assessing Researcher Publication Productivity in the Leading Information Systems Journals: A 2003~2007 Updat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24, No.14, 2009, pp. 225-254.
- Dennis, A. R., J. S. Valacich, M. A. Fuller, and C. Schneider, "Research Standards for Promotion and Tenure in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Vol.30, No.1, 2006, pp. 1-12.
- Ferratt, T. W., M. F. Gorman, J. J. Kanet, and W. D. Salisbury, "IS Journal Quality Assessment Using the Author Affiliation Index",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9, 2007, pp. 710-724.
- Huang, H. H. and J. S. C. Hsu, "An Evaluation of Publication Productivity in Information Systems: 1999 to 2003",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5, 2005, pp. 555-564.
- Lending, D. and J. C. Wetherbe, "Update on MIS Research: A Profile of Leading Journals and

- U. S. Universities”, *Data Base*, Vol.23, No.3, 1992, pp. 5-11.
- Karuga, G. G., P. B. Lowry, and V. J. Richardson, “Assessing the Impact of Premie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over Tim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9, No.7, 2006, pp. 115-131.
- Katerattanakul, P., B. Han, and S. Hong, “Objective Quality Ranking of Computing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6, No.10, 2003, pp. 111-114.
- Kozar, K., K. Larsen, and D. W. Straub, “Leveling the Playing Field: A Comparative Analysis of Business School Journal Productivity”,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7, 2006, pp. 524-538.
- Lindsey, D., “Production and Citation Measure in the Sociology of Science: The Problem of Multiple Authorship”,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10, 1980, pp. 145-162.
- Lowry, P. B., D. Romans, and A. Curtis, “Global Journal Prestige and Supporting Disciplines: A Scientometric Study of Information Systems Journal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5, No.2, 2004, pp. 29-77.
- Lowry, P. B., G. G. Karuga, and V. J. Richardson, “Assessing Leading Institutions, Faculty, and Articles in Premie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20, No.16, 2007, pp. 142-203.
- Mylonopoulos, N. and V. Theoharakis, “Global Perceptions of IS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4, No.9, 2001, pp. 29-33.
- Peppers, K. and Y. Tang, “Identifying and Evaluating the Universe of Outlets fo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Ranking the Journal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ory and Application*, Vol.5, No.1, 2003, pp. 63-84.
- Rainer, Jr. K. and M. Miller, “Examining Differences across Journal Ranking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8, No.2, 2005, pp. 91-94.
- Templeton, G., B. Lewis, and X. Lou, “Author Affiliation Index: Response to Ferratt *et al.*”,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9, 2007, pp. 725-731.
- Treichmann, J., A. Dennis, G. Northcraft, and A. Neimi, “Serving Multiple Constituencies in the Business School: MBA Program Versus Research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3, No.6, 2000, pp. 1130-1141.
- Willcocks, L., E. A. Whitley, and C. Avgerou, “The Ranking of Top IS Journals: A Perspective from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7, No.2, 2008, pp. 163-168.
- <http://www.isworld.org/>.
- <http://home.aisnet.org/>.
- <http://www.vvenkatesh.com/ISranking>.

Evaluating Publication Productivity of Korean IS Researchers in Leading IS Journals, 2007~2009

Sehun Lim^{*} · Kounghuy Min^{**}

Abstract

This study measures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IS researchers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select 11 leading IS journals, those are *MIS Quarterly(MISQ)*, *Information Systems Research(ISR)*,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JMI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JAI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EJIS)*, *Information Systems Journal(ISJ)*, *Decision Support Systems(DS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CAIS)*, *Information and Management(I&M)*, *Journal of Strategy Information Systems(JSIS)*, and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JIT)*. We analyzed the published articles of IS researchers in South Korea between 2007 and 2009 using scientometric techniques for measuring research productiv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s that IS research productivity has becom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business tool to assist advertizing of electing student of IS department and university, and take a person into IS professor in the IS job market. IS productivity research on Korean IS researcher rarely showed. The unique study showed valuable contributions for academicians to provide a better comprehension of publishing trend of leading IS journals.

Keywords: *Information Systems, Academic Research, Research Productivity, Promotion, Scientometric Analysi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IS, Sangj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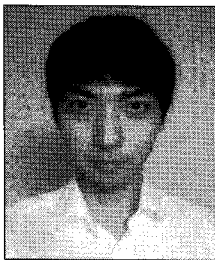
** Stud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hung-Ang University

● 저 자 소개 ●



임 세 현 (slimit@sangji.ac.kr)

현재 상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물류IT, IT/IS응용, Interaction Design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민 경 휘 (bobosmin@gmail.com)

현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저자는 상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하였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및 e-비즈니스 응용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논문접수일 : 2010년 12월 16일

1차 수정일 : 2011년 02월 0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7월 19일

2차 수정일 : 2011년 07월 15일